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8 pp. 3427-3435,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8.3427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윤성원[1*], 김기승[1]
[1]경기대학교 직업학과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for Baby Boomer Generation

Sung-Won Yun[1*] and Ki-Seung Kim[1]
[1]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 약 2010년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맏형격인 1955년생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발달된 의학기술과 향상된 생활수준 그리고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곧 기대수명이 길어진 노인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과 맞물려 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은퇴준비를 알아보고자 첫째, 월 평균소득과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분석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1. 17.~2. 16까지 1개월 동안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전남, 제주도 등에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유효한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은퇴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보여졌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58%의 영향력을 보이며 자기평가,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의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Beginning with retirement in 2010 of the leading group of baby boomer generation born in 1955, baby boomers are starting to retire from work in full-scale. Since retirement of baby boomers refers to increase in the senior class with longer life expectancies caused by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enhancement of living standards, and improvement of surrounding environments, annually decreasing birthrate is further accelerating entry of our society into an aged society. Accordingly to examine baby boomer generation's preparation for retirement in relation to career self-efficacy, first, difference in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mean monthly income and current occupation was analyzed. Second,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retirement preparation was studied.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one month between January 17 and February 16, 2012 in Seoul, Gyeonggi, Gangwon, Chungnam, Gyeongnam, Jeonnam, and Jeju. 500 surveys were distributed to baby boomer generations through direct visit and mail, among which 443 responses were returned. 400 effective responses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As a result, preparation for retirement according to mean monthly income was verified to be significant in terms of economic and physical factors. Significant results were shown in all factors including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factor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current occupation. Career self-efficacy had greatest influence of 58% on retirement preparation with economic factors. It also influenced all factors including self assessment, objective set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problem solving.

Key Words : Baby Boomer, Career Self-efficacy, Preparation for Retire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g-Won Yun
Tel: +82-10-2537-8443 email: install007@paran.com
접수일 12년 05월 03일 수정일 12년 05월 23일 게재확정일 12년 08월 09일

1. 서론

1.1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25전쟁 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의 9년의 기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로 대략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58%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2]. 이들은 하나의 코호트(cohort)로서 역사,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1].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들의 움직임은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3].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0년부터 정년퇴직연령에 접어들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최근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가 당면하게 되는 최근 이슈는 '은퇴'라고 할 수 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712만 인구의 은퇴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3].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80년대 후반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수준으로 인하여 이전 세대에 비해 부의 축적이 축소되어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며, 80년대 후반 부동산 구입 및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집단으로도 요약된다[5, 6].

가치관 측면에서는 전통과 혁신의 양면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후는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세대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첫 세대[13]로 볼 수 있다. 이들의 비교적 높은 소비 성향과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충분히 마련 하는데는 걸림돌이 되어 왔고, 부동산 중심의 불균형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은퇴 후 충분한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 역시 기대하기 힘든 세대가 됨으로써 이들의 준비되지 않는 대량 은퇴는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

은퇴라는 용어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비교적 최근 도입된 개념으로 고용 시장 불안정성의 확대와 사회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은퇴 이후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즉 은퇴 후 필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와 적정 수준의 은퇴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7, 8]. 또한 은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행동적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9, 11, 21]. 그동안의 은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적절한 소득 수준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주요 주제가 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적절한 은퇴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성, 예를 들면 주택문제, 자녀 교육문제, 심각한 고령화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는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부터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3, 12, 13].

베이비부머에 관련 연구들은 베이비부머의 현황을 기술하면서 이들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이나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12, 14]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은퇴준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 발달 안정기에 해당하는 중·고령자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향후 은퇴준비 방향이나 전략수립,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나온 개념이다. 반두라[15]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결과를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자신감에 관련되어 있다[16].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헤케트와 베츠[17]는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영역에 적용하였다. 그 후 헤케트와 베츠[17]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자기효능감'이라 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진로자기효능감이 특정 학문분야, 전

공,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고 말한다[18].

진로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이를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 구직효능감이고[19] 진로선택에 적용시킨 것이 진로자기효능감이다.

1.3 은퇴준비

Miller[20]는 은퇴를 하나의 위기로 보았다. 그는 은퇴를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 혹은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낙인 등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로 보았다. 이에 비하여 Atchley[22]는 은퇴를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고 일생주기에 있어 오래 전부터 예견해온 단계로 여겼다. 그러므로 은퇴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비통해 하거나 부적응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3].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의 시기로 고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은퇴를 수동적이고 단조로우며,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은퇴하기를 두려워한다[24].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았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준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은퇴준비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Ando & Modigliani[25]의 생애주기 가설을(life cycle income hypothesis)이론적 토대로 삼았다[3, 9, 26, 28]. 이 이론을 토대로 생애주기 후반기에 해당하는 은퇴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은퇴자금을 추정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 경제적 준비와 관련한 이지은[2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는 자신의 현재연령보다 앞선 시기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대책을 세우는 목적은 여유롭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가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이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가 하는 재정적인 측면을 다룬다기 보다는 은퇴준비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초점이기 때문에 Ajzen[27]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삼았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은퇴준비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본추출방법 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형 중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1. 17.~2. 16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및 제주도를 포함하여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수집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부적절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총 4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자기효능감과 은퇴준비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셋째, 월 평균수입과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 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넷째, 은퇴준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이상의 검증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문사회에서 사용되는 유의도의 유의수준인 5.0%(α =.05)이하를 채택하였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항은 김수란[34], 김태희[35], 이현주[3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기평가, 목표설

정, 직업정보, 문제해결이라는 4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은퇴준비를 측정하는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Ajzen[27]이 제작한 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다시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3, 11, 28]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3항목으로 은퇴준비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은퇴준비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만들었다.

3. 실증분석결과

3.1 표본의 특성

[표 1]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 분		표집수	%
성별	남	202	50.5
	여	198	49.5
최종학력	중졸 이하	35	8.8
	고졸	152	38.0
	대졸	159	39.8
	대학원졸 이상	54	13.5
월 평균수입	200만원 미만	123	30.8
	200~400만원 미만	166	41.5
	400만원 이상	111	27.8
현재 본인의 직업	전문직	88	22.0
	사무관리직	87	21.8
	서비스직	80	20.0
	생산제조직	42	10.5
	단순노무직	37	9.3
	자영업	66	16.5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2명(50.5%), 여자 198명(49.5%) 등이며, 최종학력은 대졸이상이 많았으며, 월 평균수입은 200~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3.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각 하위요인 모두에서 0.5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진로자기효능감 요인분석
[Table 2] Career Self-efficacy Factor analysis

문 항	자기 평가	목표 설정	직업 정보	문제 해결
은퇴이후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84			
진로계획이 있다	.81			
나는 은퇴이후의 계획이 있다	.74			
많은 직업 중 내게 맞는 직업 선택	.72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알 수 있다	.67			
5년 후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63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다	.56			
항상 목표 세우고 진행상태 확인		.74		
실수해도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음		.70		
앞으로의 계획을 적고 때때로 수정		.56		
직업선택을 위한 자주 정보 수집			.84	
직업정보를 인맥이나 인터넷 이용			.75	
어떤 직업도 탐색가능하다			.63	
도움을 줄 사람이나 기관을 안다			.58	
내가 하는 업무를 잘 안다				.78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노력				.73
처음선택이 잘못되면 대안을 생각				.63
내가 할 수 있는일 없는일을 판단				.62
역경 이겨낸 사람보면 의지 생김				.59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세가 됨				.51

주: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순으로 제시함.

[표 3] 은퇴준비 요인분석
[Table 3] preparation to retirement Factor analysis

문 항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은퇴 후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	.82		
현재 직업 외에 다른 일도 한다	.70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길 원함	.67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한다	.63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준비한다	.58		
충분한 수면을 갖는다		.85	
건강위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		.73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71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53	
자녀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			.77
노년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함			.74
현재 종교 및 자원봉사에 참여			.67
부부끼리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함			.45

주: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순으로 제시함.

[표 4] 신뢰도 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변	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자기효능감	자기평가	7	.90
	목표설정	3	.74
	직업정보	4	.85
	문제해결	6	.78
은퇴준비	경제적	5	.79
	신체적	4	.79
	사회적	4	.56

3.3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준비

[표 5]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준비
[Table 5] preparation to retirement According to monthly income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경제적	200만원 미만	123	2.55	.93	4.96**	a<b<c
	200~400	166	2.61	.91		
	400만원 이상	111	2.88	.63		
신체적	200만원 미만	123	3.08	.82	20.26***	a<b<c
	200~400	166	3.35	.81		
	400만원 이상	111	3.72	.64		
사회적	200만원 미만	123	3.86	.58	.46	b<a<c
	200~400	166	3.91	.49		
	400만원 이상	111	3.90	.47		

***p<.001, **p<.01
주: (a) 200만원 미만, (b) 200~400만원 미만, (c)400만원 이상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았으며 은퇴준비의 요인 중 월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적, 신체적 요인에서 은퇴준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수입이 적을수록 은퇴준비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 평균수입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은퇴 이후를 위해 재테크나 저축과 같은 경제적인 준비와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월 평균수입은 재정상황과도 직결되는 변수 중 하나로 백은영[3]의 연구를 보면 월 평균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베이비부머에 비해 소득이 더 높은 베이비부머들은 모두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서 월 평균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경우보다 200만원~3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두 배 또는 2.5배 이상 은퇴준비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졌으며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은퇴준비를 할 확률이 월 평균수입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3.4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는 [표 6]과 같이 분석되었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등의 모든 요인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
[Table 6] preparation to retirement According to current Job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경제적	전문직	88	2.89	.68	45.36***	d<e<f<b<a<c
	사무관리직	87	2.88	.54		
	서비스직	80	3.08	.79		
	생산제조직	42	1.56	.63		
	단순노무직	37	1.75	.83		
	자영업	66	2.82	.85		
신체적	전문직	88	3.61	.73	19.11***	e<d<f<c<a<b
	사무관리직	87	3.71	.70		
	서비스직	80	3.43	.63		
	생산제조직	42	2.73	.49		
	단순노무직	37	2.68	.81		
	자영업	66	3.33	.93		
사회적	전문직	88	3.82	.59	4.74***	c<a<f<e<b<d
	사무관리직	87	3.96	.37		
	서비스직	80	3.76	.51		
	생산제조직	42	4.19	.26		
	단순노무직	37	3.90	.46		
	자영업	66	3.87	.63		

***p<.001
주: (a) 전문직, (b) 사무관리직, (c) 서비스직, (d) 생산제조직, (e) 단순노무직, (f) 자영업

Malroutu와 Xiao[37]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은퇴준비에 불충분하다고 보고되었으며 Foster[38]와 차경욱 외[39]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일수록 은퇴계획에 의식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37, 38, 39]와 이번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관리직이나 생산제조직에 종사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은퇴이후에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타인을 위한 인간적 관심과 이타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3.5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표 7]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Preparation to retirement

변인	변수	B	SE	β	t(p)
경제적	(상수)	1.07	.19		5.51
	자기평가	.55	.05	.56***	11.45
	문제해결	-.39	.06	-.25***	-6.40
	직업정보	.23	.04	.24***	5.19
	목표설정	.18	.05	.17***	4.00
	Adj R2=.58 F=138.62 ***p<.001				
신체적	(상수)	1.36	.23		5.91
	자기평가	.36	.06	.39***	6.37
	문제해결	.00	.07	.00	.02
	직업정보	.02	.05	.03	.45
	목표설정	.24	.05	.24***	4.54
	Adj R2=.35 F=53.35 ***p<.001				
사회적	(상수)	2.29	.16		14.40
	자기평가	.03	.04	.06	.86
	문제해결	.48	.05	.52***	9.76
	직업정보	-.12	.04	-.21**	-3.31
	목표설정	.02	.04	.03	.46
	Adj R2=.23 F=29.98 ***p<.001 ** p<.01				

은퇴준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진로자기효능감은 경제적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배문조·전귀연[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은퇴준비를 자연스러운 발달단계로 여기며 진로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말한 이성광[18]의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사이에 전체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은퇴물결에 휩쓸릴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사회활동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인구의 증가는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가정과 사회에 부담이 될 것이다[1].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진로자기효능감과 은퇴준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은퇴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보여졌다.

셋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58%의 영향력을 보이며 자기평가,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의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특정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할 때 그 상황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 상황을 회피한다고 하였는데,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은퇴를 준비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나 미래에 대한 시각에 적극적이라 은퇴준비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문조·전귀연[10], 이성광[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관련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와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30, 31, 32, 33], 국내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몇 연구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3, 12, 13].

Lusardi 와 Mitchell[32], Kelly와 Harding[33]는 각각 미국과 호주의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관해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위해 충분한 자산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의 많은 부분이 주택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와 관련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베이비부머의 현황을 기술하면서 이들의 은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정호성[13]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 구성 중 실물자산 구성이 높다는 것(76.8%)과 금융자산은 전체 보유 자산의 16.3%에 불과하며 금융자산 보유구조는 대부분 안전자산 위주로 타 연령대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신계수·조성숙[41]의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유형 이전 또는 이후 세대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와 그 이전, 이후 세대의 경제적 은퇴준비에는 직업, 생활수준, 가정의 순자산 규모, 가정의 월 평균소득, 채무 등이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은퇴준비

에는 연령, 건강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적 은퇴준비는 결혼, 학력, 자녀의 수, 은퇴시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은영[3]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은퇴준비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고 퇴직금으로 은퇴준비를 하는 반면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경우 예·적금이나 저축성보험, 부동산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고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경우는 개인연금으로 은퇴준비를 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의 생활을 위한 경제력 위축과 취업의 의사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 정년퇴직, 연봉제, 계약제와 같은 고용형태의 취업유형의 다양화 등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공적으로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장기실업자로 낙오될 확률이 더 높다. 장기근속과 연령에 따른 높은 연봉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기업에서의 퇴출 일순위로 자리 매김되는 현실이다[1].

백은영[3]의 연구결과에서는 약 80% 가량의 베이비부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동안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수가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체 베이비부머 중 10.32%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약 80%정도는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지 그 충분성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베이비부머 평균 자산보유현황을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42].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전에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은퇴준비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해서 삶의 만족도, 주거유형, 노후생활 인식, 건강수준, 부동산시장, 국민연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의 사회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앞으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은퇴준비 교육에 따른 인식의 변화 또는 은퇴준비 방법이나 은퇴준비 수준의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급속히 진행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 은퇴를 준비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여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1] Kim, Mi W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aby Boomers Quality of Life After Their Retirement",*Journa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vol. 15,* pp.211-231, 2001.

[2] Hyundai Research Institude, "HRI Research Report", 2009.

[3] Back, Eunyoung, "Determinant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s", *Journal of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7, No 2,* 2011.

[4] YTN News, 2012. 2. 7.

[5] Kim, Young Ho, "Baby boom rally", iremedia, 2006.

[6] Lee, Jong Sang, "A Study on Baby Boomers' Retirement Life : Focused on Their Housing Types", master's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2007.

[7] An, Chong Bum·Jeon, Seung Hoon, "Measuring the Optimal Income Replacement Ratio",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 15,* pp.5-33, 2005.

[8] Yuh, Yoon Kyung, "Estimating Retirement Consumption Needs Using Target Replacement Rate",*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0, No 3,* 2002.

[9] Park, Chang Je,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 3,* 2008.

[10] Bae, Moon JO·Jeon, Kwee Yeon,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2, No 7,* 2004.

[11] Jeong, Woon Young, "Causal Effects on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Retirement Preparations", *Journal of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5, No 2,* 2009.

[12] Kim, Seong Ryung, "A study on Family values,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for Baby-boom generation, master's Daegu University, 2011.

[13] Chung, Sung Ho,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9, No 2, 2006.

[14] Joo, Jae Young, "Efficacy of baby boomers prepare for retirement and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master's Korea University, 2011.

[15] Bandura, A. & Wood, R. “Effen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i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6*, *No. 5,* pp. 805-814, 1989.

[16] Kim, Byeong Suk .“Occupational Information Theory”, Seoul: Sigma Press, 2007.

[17] Hackett, G., & Betz, N.E., "A self-efficacy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8, pp. 326-339, 1981.

[18] Lee, Seong Gwang, “Analysis on Career Time Prospect According to Career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at Kyonggi National University, 2007.

[19] Kanfer, R., & Hulin, C. L.,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38,* pp. 835-847, 1985.

[20] Millers, S., "The Social dilemma of the aging leisure participant", In W. Rose, & W. Peterson,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hiladelphia: F. A. Davis Co. pp. 77-92, 1965.

[21] Chung, Sung Ho,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9, No 2,* 2006.

[22] Atchley, R. C., "Retirement and work orientation. *The Gerontologist, 11, Spring,* pp. 29-32, 1971.

[23] Kim Aie Soon & Yoon Jin,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retirement",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pp. 55-80, 1995.

[24] Fretz, B. R., & Merikangas, M. W., "Preretirement programing: Needs and responses", In L. H. Daniel, Adult career development: Concepts, issues, and practices, Alexandria, VA:Nation Career Development Assoc, 1992.

[25] Ando, A., & Modiglin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s: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American Economics Review, vol, 53,* pp. 55-84, 1963.

[26] Yuh, Yoon Kyung·Kim, Jin Ho, "Adequacy Test of Retirement Wealth Using Simulations", *Journal of Money & Finance, vol. 21, No 2,* 2007.

[27]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p. 179-211, 1991.

[28] Choi, Hye Ji ·Lee, Young Boon, "Research on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Amo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Based on Socio-Psycho Paradig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3,* 2005.

[29] Lee, Ji Eun, "A Study on the Middle-aged Worker's Life Plan for Their Elderly Life",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9.

[30] Bernheim, B. D., *Is the Baby Boom Generation Adequately for Retirement?* Merrill Lynch, 1992.

[31] Kelly, S. & Harding, A., "Funding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Agenda,* 11(2), pp. 99-112, 2004.

[32] Lusardi, A. & Mitchell, O.,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2006.

[33] Wolff, E. N., "The Retirement wealth of the baby boom gener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 pp. 1-40, 2007.

[34] Kim, Su Ran, “The Effect of Job Fame Level and Workplace Awareness Perceived by Workers on Self Respect”,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yonggi University, 2004.

[35] Kim, Tae Hee, “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Value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Self-efficacy in Vocational Counselors”, master's dissertation at Hongik University, 2007.

[36] Lee, Heyon Ju, "The Effect of Personal Background, Occupational Value and Job Motivation on Occupational Selection", *Study of Educational Psychology, Issue 18 No. 2,* pp. 17-33. 2004.

[37] Malroutu, Y. L. & Xiao, J. J.,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inacial Counseling and Planning, No. 6, pp. 17-24,* 1995.

[38] Foster, A. C., "Employe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s", *Montbly Labor Review, March, pp.17-22,* 1996.

[39] Cha, Kyung Wook · Park, Mi Youn ·Kim, Yeon Ju,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Paid Workers Aged 20s and 30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6, No 1,* 2008.

[40] Beck, S. H.,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y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y, 39(5), pp. 596-602,* 1984.

[41] Shin, Gye Soo ·Cho, Sung Sook, "Effects of the Occupation and Activity Nature of the Middle-Aged on Ret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 11, No. 11,* 2011.

[42] SERI.org, "Impact of Baby Boomers Retirement and Countermeasures", 2010.

윤 성 원(Sung-Won Yun)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K up Dream Team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성격심리, 비교심리, 진화심리, 직업상담심리학

김 기 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사회교육전공 (교육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성평가원 원장
- 2005년 3월 ~ 201년 4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성격심리, 선천적성, 직무분석, 직업체질